

관음설화의 여성화 전략과 형상화의 의미

A Study on the Strategy and Aspect of Feminization of KANUM

저자 (Authors)	최정선 Choi Jung-sun
출처 (Source)	인간연구 (10) , 2006.1, 117-147(31 pages) Journal of Human Studies (10) , 2006.1, 117-147(31 pages)
발행처 (Publisher)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Institute of Anthropolog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Id=NODE01660914
APA Style	최정선 (2006). 관음설화의 여성화 전략과 형상화의 의미. 인간연구(10), 117-14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8 15: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관음설화의 여성화 전략과 형상화의 의미

최 정 선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 국어국문학)

- 1. 관음의 여성화
- 2. 『삼국유사』 관음설화와 여성응신 양상
 - 2.1. 욕망과 성관음
 - 2.2. 유혹과 광명관음
 - 2.3. 자애와 자모관음
- 3. 관음의 이상화된 여성화와 의미

1. 관음의 여성화

세간의 소리를 마음의 눈[心眼]으로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의 관음(觀音)은 불교 수용 초기부터 폭넓게 신봉되었다. 마음으로 진실하게 염원하는 바를 관찰하여 고통을 덜어 준다는 관음의 역할은 현세 희구(希求)적 신앙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사랑의 힘으로 중생의 고통을 헤아려 살핀다는 관세음보살의 현세적 구체력은 종교적 감화력을 확장시키는 설득력 있는 기제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관음신앙은 고대 삼국이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불교 신앙 확산에 기여해 왔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실린 불교설화 가운데 관음설화가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삼국유사』 관음설화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관음설화를 유형화하는 것¹⁾에서 비롯되어,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의미를 밝히거나,²⁾ 동아시아 문학권 내에서의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을 탐구³⁾, 또는 성불유도형 관음설화에 나타난 성적인 여성의 문제를 밝히는 것⁴⁾과 같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관음설화에 나타난 관음의 화신이 여성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들로서 관음설화 연구의 토대를 닦고 관음이 여신화되었음을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연구는 관음신앙의 수용 과정에서 관음이 여신화되었다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착하고, 그 연유와 중세적 의미를 밝혀 내고자 하였다. 관음의 원형인 인도의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는 본래 남신이었다. 남성신이었던 관음이 중국으로 전래된 이래 여신화되었고, 고대 삼국에 전래되면서 온전한 여신의 모습으로 정착되게 되었다.⁵⁾ 관음은 중국에서 일차적인 변화를 거쳐⁶⁾ 고대 삼국에 수용되면서 여신화가 가속화되고 정착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신화 과정은 불교 내부의 교리, 가령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기에 평등하다는 가르침, 또는 이종교(異宗教)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원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지모신, 대모신과 같은 재래 신앙과 적절한 타협을 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습합 현상, 또는 고대 신화에서 남신과 여신이 결합하여 주

-
- 1) 인권환, 「新羅 觀音說話의 樣相과 意味」, 『韓國佛敎文學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2)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 3) 조현설,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東아시아 古代學』 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
 - 4) 박상란,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佛敎語文論集』 8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3.
 - 5) 관음의 여신화에 관한 연구는 김현선(「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구비문학연구』 9, 1999); 조현설(「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東아시아 古代學』 7, 2003); Jose Ignacio Cibezon(“The Gender Symbolism of Kuan-yin Bodhisattva”, *Buddhism, sexuality and gender*; New York, Albany, 1992)를 참고할 만하다.
 - 6)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관음은 여신화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샴머니즘과 도교의 영향, 자비의 표현, 유교문화권에서 억압받던 여성의 동화와 감정 이입, 중세 종교의 특징 등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되었다. 자세한 논의는 앞의 각주에서 열거한 논문들에 설명되었다.

인공을 탄생시키는 원형성의 중세화와 같은 연유로 설명되었다. 관음이 여신화되어 나타난다는 역사적 변화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천착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창적인 연구들이라 할 수 있으나, 중세 보편 종교 이전에 고대 삼국의 불교에서 여성의 문제는 어떠한지, 관음의 여성성을 성적인 유혹자, 악녀의 이미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남성 지배에 반응하는 여성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 관음설화는 중세에 기록되었으나 고대 삼국의 불교 수용과 확산 과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신화한 관음은 인간 여성과 다른 신적 차원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성 일반 문제로 획일화하여 접근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유혹의 대상, 또는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악녀의 이미지로 고착하는 것은 불교가 여성에 왜 주목하였는가 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관음설화 가운데 관음이 여성화되어 나타난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관음의 여성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것의 당대적 의미를 불교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음이 여성화되어 나타나는 설화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의미 지향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관음신앙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여성의 이미지가 당대 사회 속에서 유효할 수 있었던 의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은 여성의 재발견과 견제된 힘의 균형이라는 유효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삼국유사』 관음설화와 여성응신 양상

『삼국유사』에서 관음이 등장하거나 관음신앙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13편이다.⁷⁾ 자료의 대부분은 신라 시기의 설화이나, 그 가운데는 고려와 중

7) 『삼국유사』 불교설화 가운데 관음설화만을 따로 독립시켜 문헌적으로 연구한 것은 인권환에 의해 시작, 심화되었다. 인권환(「新羅觀音說話의 樣相과 意味」)은 관음설화와 그와 관련된 기록들을 19편으로 보았다. 반면, 조명숙(『三國遺事』에 나타난 觀音說話의 文學的 研究),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은 관음설화를 전부 11편으로 보았다. 이는 역사 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순수 설화에 가까운 것만을 관음설화로 규정하였고 동일 조목 내의 관음설화는 모두 아울러 하나로 계

국의 관음설화도 포함되어 있다. 관음설화는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로 된 것도 있고, 2개 이상의 독립된 이야기가 하나의 조목 안에 실린 것도 있다. 이 가운데 관음이 여성으로 응신하거나 관음의 역할이 여성성이 드러나도록 강화된 것은 모두 10편이다. 관음이 비구니 혹은 아름다운 젊은 여인, 해산을 앞둔 여인과 같은 구체적인 현실체로 드러나는 경우와 관음보살상이나 그림의 불력이 모성애적인 자비(慈悲)를 드러내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다. 관음이 여성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비속한 처지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더욱 경지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는 불교설화 가운데 관음설화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요인이다.⁸⁾ 이와 같은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불교설화 중 관음설화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전형화된 관계망을 벗어난 여성 능력의 우위라는 전복된 역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맥락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관음설화의 전체적인 양상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수록편명	영험 내용	化現 형상	피구제자 신분
1	권제2 기이2 文虎王法敏	감옥에서 풀려남		김인문
2	권제3 탐상4 三所觀音衆生寺	죽음을 면함 아들을 얻음	비구	최승로
3	권제3 탐상4 栢栗寺	포로에서 풀려남	비구	부례랑과 양친
4	권제3 탐상4 敏藏寺	무사귀환	비구	장춘, 보개

산하였기 때문에 편수가 줄어든 것이다. 「김현감호(金現感虎)를 관음설화로 파악하였는데 그렇게 규정화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또한 김현선은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에서 『삼국유사』 관음설화를 모두 15편이라고 분석하였다. 「옥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과 「혜현구정(惠現求靜)까지 포함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인 관음 영험담으로 볼 수 없다. 관음의 기능이 미미하고 관음의 실제적 응신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8) 김현선(앞의 논문)은 관음설화의 특징으로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요소 이외에 승려나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거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 여성으로 나타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지 않고 승속, 남녀, 상하의 차별상을 넘어서야 화합의 경지가 구현된다는 점을 들었다.

5	권제3 탐상4 南白月二聖...	극락왕생	비구	사문(노힐부득, 달달박박)
6	권제3 탐상4 芬皇寺千手...	개안		맹아
7	권제3 탐상4 洛山二大聖...	깨달음	관음진신	승려(의상)
8	권제3 탐상4 洛山二大聖...	깨달음	白衣女人, 靑鳥	승려(원효)
9	권제3 탐상4 洛山二大聖...	깨달음	여인	승려(조신)
10	권제3 탐상4 臺山月精寺..	불사창건	노부인	승려(신희거사)
11	권제4 의해5 慈藏定律	득남		자장의 부모
12	권제4 탐상5 廣德嚴莊	극락왕생	여인	사문 (광덕, 업장)
13	권제4 탐상5 憬興遇聖	治病	비구니	경흥

관음보살이 여성화하여 응신하는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관음의 역할, 기능을 중심으로 설화를 분류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관음이 여성으로 응신하는 현상적 양상보다는 기능태에 초점을 두고 관음의 화현 양상을 분류하였다. 관음은 여성으로 현신하되 생활 속의 여인이나 비천한 신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표층의 비속함을 부정하고 내재적 힘을 보여 준다. 이때 여성의 힘이란 지혜로움, 인내, 자애로움과 같은 미덕들이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긍정하면서 도 힘을 나타내는 방식은 매우 은유적이다. 천한 신분의 여성이지만 알고 보니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배반 논리는 무지하고 성적인 유혹의 대상인 줄 알았던 여성이 사실은 깨달음과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인도자였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1. 욕망과 성관음(聖觀音)
2. 유혹과 광명관음(光明觀音)

3. 자애와 자모관음(慈母觀音)

2.1. 욕망과 쫓관음

불교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한다. 가령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욕망하기도 하며, 높은 지위에 올라 명예를 가지게 되기를 탐(貪)하기도 하고, 구복(口腹)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평안한 생활을 꿈꾼다. 그러나 불법은 탐욕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불도를 구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욕망은 순간의 일이고 허무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도를 얻을 수 없으니 수도하는 자라면 반드시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 욕망이다. 그러나 속세의 인간은 순간순간 욕망에 함몰되게 마련이고, 이는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된다. 때문에 관음은 여인으로 응신하여 세속적인 욕망을 지혜롭게 다스려 극복하게 만든다.

관음의 응신 혹은 관음이 나타나 욕망을 제어하도록 유도하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는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경흥우성」(憬興遇聖)과 「신효거사」(信孝居士)이다.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모두 깨달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관음은 설화 속 인물의 불교 수행 경지의 차원을 시험하거나, 불각(不覺)한 상황을 깨달음으로 [覺] 이끌어 준다. 불교의 최고 경지인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관음의 자이이타(自利利他)의 실천 양식이라 하겠다.

의상법사(義湘法師)가 당(唐)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이 이 해변의 굴 안에 산다는 말을 듣고 낙산이라 했다. 의상(義湘)이 재계한 지 7일 만에 친중 등 팔부시종이 굴속으로 인도하였는데 공중을 향해 참배하니 수정 엄주 한 꾸러미를 누었다. 나와서 다시 7일을 재계한 후 관음의 용모를 보았는데 불전을 지으라 하므로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셨다.

후에 원효법사(元曉法師)가 예하려고 하여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인이 버를 베고 있었으므로 희롱 삼아 버를 달라고 하니

여인이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회롱 삼아 대답하였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니 한 여인이 개짐을 빨고 있었으므로 물을 달라고 하니 그 더러운 물을 떠서 주었다. 이에 버리고 다시 깨끗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있는 소나무에서 파랑새가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는 곧 사라졌는데 소나무 아래에는 신 한 짝이 있었다. 원효가 절에 이르니 관음보살상 자리 아래에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그제야 앞서 만난 聖女가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⁹⁾

화엄사찰(華嚴寺刹)의 하나인 낙산사(洛山寺)에 얽힌 이야기이다. 낙산사라 함은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곳을 인도에서는 보타낙가산(寶陀洛伽山)이라고 하므로 여기서 이름을 취한 것이다.¹⁰⁾

9) 『三國遺事』 卷 三 塔像 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10) 謙田武雄은 『新羅佛教史序說』(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88, 400~404쪽)에서 색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관음신앙이 補陀落迦靈場으로서 정착한 것은 晚唐부터 五代에 이르는 시기의 일이므로 7세기인 원효, 의상의 시기에는 아직 이러한 관습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이 관음의 주거로 설정한 補陀落迦山은 浙江省明州의 동해상에 있는 舟山島에서 또 떨어진 섬에 있는 普陀山으로, 다른 이름은 梅岑山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 관음신앙이 補陀落靈場과 습합한 것은 후대의 일로서 해양민들 사이에서는 光世音信仰이 蛇龍信仰과 맥락을 같이하여 오랜 옛날부터 동방의로의 標로서 정착하였다. 때문에 의상이 관음의 진신을 친견했다고 하는 것도 그가 揚州 登州에 있을 때 접촉한 국제적인 해양민, 무역 상인들의 신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여 설화의 사실성 여부에 강한 의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 설화 문맥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원효가 관음신앙과 무연한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원효가 해양성과는 이질적인 존재였던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洛山寺가 있는 河西州는 옛날 고구려의 영토였다. 寶藏王 때 도교를 받드는 많은 승려들이 신라에 피난하여 왔을 때 관음을 믿는 일파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해의 산중에 숨어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고 추론하였다. 여기서 한반도 古來의 白衣와 巫女를 중심으로 하는 사머니즘과 습합하여 독자적인 관음신앙을 창조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의상 시대에 이르러서는 남해경유의 관음신앙이 새롭게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제주나 백제의 뱃사람들이나 어민들 사이에 침투한 후 점차로 신라 측의 동해 쪽으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의상과 원효는 문무왕의 중앙집권화 구상 가운데 하나로 이들 이교도들을 통합하도록 촉구하였을 것이라 추측하였다. 북방계와 남방계의 관음신앙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협력하여 소박한 태양신앙과 관음신앙을 먼저 아미타로 습합시키고, 다시 화엄사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시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은 의상과 원효가 각각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낙산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의상은 관음을 친견하기 위해 14일 동안 재계(齋戒)를 하고 관음진신을 친견한다. 반면, 원효는 관음을 친견하기 위해 낙산을 찾아가는 도중 관음의 화신인 여인과 파랑새를 만나지만 그것들이 관음의 화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며, 낙산에 이르러서도 풍량이 일어 관음을 친견하지 못한다.

『삼국유사』에서 원효는 성사(聖師)라고 높이 불릴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화에서는 관음 친견을 성취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조동일은 숭고한 것을 숭고하게 추구하는 의상식의 귀족불교에 대한 민중의 반발이 원효의 방식을 택하게 하였다고 보았다. 즉, 숭고한 것과 비속한 것이 둘이 아니요, 숭고하다고 받들어 온 보살을 그렇게까지 비속하다고 해야 숭고에 집착하지 않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속한 사람이 자기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¹¹⁾ 원효의 민중적 시각을 일연이 높이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효는 왜 관음을 친견하지 못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귀족불교에 대한 반발로 원효식의 신앙 방식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당연히 그도 관음진신은 친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이다. 윤중배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색다른 논리를 펼치고 있다. 즉, 의상은 관음을 만나기 위해 14일 동안 재계하였고, 원효는 이를 무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민중의 입장에서 친견의 성취는 당연히 의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원효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논리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신비 체험을 위해서는 적절한 통과의례가 필요하다는 민중의 논리에 밀려 관음의 진용을 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¹²⁾ 『삼국유사』에서는 의상을 더 높이 받들고 원효를 경원시켰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서로 대립되는 두 견해는 설화의 의미를 이분화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태도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원효는 민중적이고 승속(僧俗)을 초월했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의상은 귀족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부정되

11)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54쪽.

12) 윤중배, 「『삼국유사』 고승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동양고전연구』 4집, 동양고전문학회, 1995.

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다. 더욱이 의상은 계율을 충실히 지키고 격식을 차리는 바람직한 승려인 데 비해, 원효는 파행을 일삼은 어긋난 승려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불보살을 만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각성과 자비의 체험을 형상화한 것이다. 원효가 만난 관음보살은 흰옷 입은 여성이었는데, 하나는 벼 베는 여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짐을 빼는 여인이었다. 원효는 생활 속에서 여인들을 만났을 당시에는 그녀들의 진상을 직접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곧 그것의 본질적 의미를 각성하게 되었다.¹³⁾ 관음보살이 우리와 가까운 곳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임을 은유화하는 방식으로 관음의 존재 양식을 설명한 것이다. 벼를 베는 것은 생산을 의미하고, 개짐을 빼는 것 역시 생명의 잉태와 관계된다.¹⁴⁾ 관음은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잉태와 출산에 관련된 상징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여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아름다움과 유혹의 고풍적인 자태와는 거리가 있다. 즉 ‘베어 버림’ ‘생리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 고착되어 존재를 드러냄으로 인해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대상화를 거부한다. 이와 같은 부정적 상징성은 관음의 진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다. 편견과 세속의 기준에 매여 있으면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원효가 관음진신을 친견하고도 깨닫지 못한 것은 속세의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 여인이 관음의 응신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마음에서 온전하게 벗어나 사물을 의식적인 구분 없이 볼 수 있는 참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효는 파랑새, 신발을 통해 여인들이 관음의 응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새는 관음의 변형이고,¹⁵⁾ 신발은 관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매개물이

13) 김영태(『신라불교연구』, 민족문화사, 1987, 227쪽)는 관음의 遊戯三昧를 보여 준 것이라 했다. “遊한다는 것은 遊戯三昧의 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생활을 아무런 장애 없이 계속 이어 나가게 하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度他로 바른 생활의 最勝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14) 『삼국유사와 여성』(길태숙·윤혜신·최선경, 이희, 2003, 249쪽)에서는 흰옷을 입고 벼를 베는 여인과 원효가 희롱한 것은 성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산을 전제한 곡모적 성격으로 풀이하였다.

15) 우리나라에서 단독으로 모셔진 관음도 대부분은 화엄경 계통의 수월관음도이다. 우

다.16) 관음응신의 상징적인 매개물을 통해 원효는 생활 속 가까이 있는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때 관음의 진신이 여성의 몸으로 나타나 원효의 각성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효는 오히려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응신하는 관음을 만났기 때문에 관음진신을 친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효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관음의 진신을 이미 만났으므로 관음상을 직접 친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원효의 태도가 의상에 비해 정성이 덜하였기에 관음상을 친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원효가 관음의 진신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상에 비해 폄하되었다고 단정지어서도 안 된다. 원효는 서유구법(西游求法)을 마치고 있다가 도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萬法惟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我不入唐”¹⁷⁾의 각성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는 원효가 관음진신을 친견하지 못한 것보다 맥락을 같이한다. 관음의 진신은 친견하지 못하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을 깨우치고 시험하기 위해 나타나는 관음의 화현을 만나 그것의 실상을 깨우치고 자비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관음진신 친견 못지 않은 만남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관음은 노부인(老婦人)이나 빨래 빠는 여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승려를 시험한다. 이러한 시험은 그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상으로 드러나는 사물의 파악이란 마음의 분별심에 의한 것이지 그 자체의 실체란 없는 것이다. 불보살이 변신한 모습으로 찾아와 진리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며 사물의 진상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중생

리 고유의 수월관음도의 특징은 선재동자가 등장하여 관세음보살에게 보리의 가르침을 구한다는 점, 관음 옆에 버드나무 가지가 꽃힌 정병이 놓여 있다는 점(돈황의 수월관음상은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 파랑새가 날며 염주가 등장한다는 점 등이다. 즉 파랑새는 관음도상에 반드시 등장하며 관음조의 변형임을 암시한다.

16) 신발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가령 일본의 불교설화집인 『일본영이기』의 관음설화 가운데(중권 43화) 관음의 응신이 여인(여동생)으로 나타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여 주는 이야기가 있다. 후에 알고 보니 관음상의 발바닥(신발)에 말의 분노가 묻어 있어 관음이 여동생으로 응신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관음의 응신이 발 혹은 신발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영이기』 관음설화에 대한 해석과 비교는 『三國遺事 觀音說話와 그 詩의 變容에 관한 研究』(최정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에 상세하다.

17) 『宋高僧傳』 卷 四 唐新羅國 義湘傳.

속에 불보살이 있다는 깨우침에 이르도록 인도한다. 마침내 변화관음이 관음의 진신이라는 실체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 깨달은[覺] 자에 한하여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간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관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현세 이익적인 관음 기능의 변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조의 마지막에 실린 이야기는 조신이 꿈을 통해 세상사의 허망함을 깨닫는 이야기이다. 관음설화는 현실적 삶의 고통에 휩싸인 중생의 구복(求福)과 깨달음[悟道]의 문제를 관음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데,¹⁸⁾ 조신의 꿈 이야기는 깨달음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탄탄하게 구상화하여 꿈과 현실의 이중 구조를 통해 무상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 전통을 만들었다. 관음이 직접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응신하지는 않았으나 정신적 각성을 통해 세상사의 허망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음의 여성 형상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내용을 소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규사(世達寺)의 조신은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사모하여 낙산사(洛山寺)의 대비전에 나아가 인연을 맺어 주도록 기도했다. 그 결과 꿈에서 바라던 인연을 맺으나 행복은 잠깐, 지난한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 깨우침을 얻게 된다. 이후 세상의 모든 일이 덧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수도에 전념했다.¹⁹⁾

조신 이야기는 몽자형의 서사적 특징을 지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소설, 설화 연구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관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조신은 세규사의 스님인데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귀족의 딸을 사모하여 그녀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하여 관음상 앞에 나아가 김씨녀와 혼인을 성사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원한다. 세속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승려의 신분으로서는 차마 바랄 수 없는 애욕을 표출한 것이다. 관음은 그의 소망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

18) 오대현,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白鹿語文』 16집, 백록어문학회, 2002, 91쪽.

19) 『三國遺事』 卷 三 塔像 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려 관음불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꿈에서나마 성취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욕망의 헛됨과 삶의 고통을 현실 이상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스스로 체험하고 깨닫게 한다. 관음은 원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발원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관음의 여성성은 상대의 욕구를 정면으로 응대 부정하는 적대적 대응 방식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어리석은 욕망일지라도 인정하여 수용하려는 포용주의적 시각을 보여 준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일단 수긍하여 수용하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각성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자각하여 큰 수행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보다는 긍정, 소외보다는 포용의 태도를 견지한다.

관음은 인간적인 애욕을 끊지 못한 조신에게 단지 그것을 억제할 것만을 요구하지 않고 꿈에서나마 체험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세속적 삶의 허망함을 깨닫도록 유도한다. 관음은 나약한 인간의 소망을 보살피 성취시켜 주는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김씨녀와의 결혼을 꿈이라는 공간을 통해 가상 체험하게 하여 조신으로 하여금 더 큰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하여 불사에 전념하게 만드는 대승의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관음불은 조신의 욕망을 성취시켜 줌으로써 조신이 얻은 것이 결코 세속의 행복일 뿐 그마저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 고통임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진정한 불법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실상을 찾는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안내한다.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에 대한 불교적 깨달음의 주제는 당대 민중의 고난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현실 비판 의식과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대(對)사회적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조신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관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애욕에 젖어 있던 조신이 관음보살에 의해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관음보살의 영험담인 것이다. 조신 이야기는 관음보살이 “번뇌에 빠진 중생을 제도해 준다”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세속적인 애욕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여,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고 애욕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문제 해결력을 보이는 관음의 따뜻한 시선에 관한 찬미라고 하겠다.

다음은 늙은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관음이 신효거사를 깨닫도록 유도하는 이야기이다.

신효거사(信孝居士)란 불자가 있어 모친을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고기가 먹고 싶다가에 고기를 구하려고 산야를 헤매고 있었다. 때마침 길에서 학 다섯 마리를 보고 쏘았더니 그중 한 마리가 깃 하나를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다. 그 떨어진 것으로 사람을 보니 모두 축생으로 보였다. 신호는 고기를 얻지 못하고 자기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모친에게 공양하였다. 그 뒤 신호는 자기의 집을 회사하여 절을 지으니 효가원(孝家院)이다. 신호가 하술(河率)에 이르러 길 가던 늙은 부인에게 살 만한 곳을 물으니 서쪽 고개를 넘으면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데 살 만하다고 말하고는 모습을 감추었다. 거사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인 줄 알고 성오평을 지나 자장법사가 처음 모옥을 지은 곳으로 들어가 도장을 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섯 종이 와서 옛날에 가져간 가사(袈裟) 한 벌이 어디 있는가를 물었다. 신호는 놀라 옛날 학의 깃을 내어 보이니 중은 자신의 뚫어진 가사에 맞추었다. 신호는 그 다섯 학이 오류성중(五類聖衆)임을 뒤늦게 깨달았다.²⁰⁾

이는 신효거사에 얽힌 이야기로 절을 세우고 불도를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거사(居士)라 함은 여항에서나마 출가에 못지 않게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의 선업을 닦거나 닦고자 애쓰는 계층이다.²¹⁾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효성과 아울러 깨달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불교의 출가는 효의 실행과 배치되는 것으로 인하여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봉양해야 할 부모를 방기하고 속세를 떠나는 출가는 “효” 실행과는 거리가 있는 행동이었다. 때문에 불교는 부모에 대한 효행과 보살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했다. 불교적 깨달음과 사찰 건립을 통한 불교의 대중화는 사사로운 정보다는 대의를 생각하는 도의로 칭송받았다. 이와 같은 사상은 『삼국유사』의 마지막 편목인 효선(孝善)편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²²⁾

20) 『三國遺事』 卷三 塔像 四臺山月精寺 五類聖衆.

21) 이들은 거가수행(居家修行)에 힘쓰는 한편, 도로영선(道路營繕) 등 사회 봉사에도 종사하고 민중 속에 들어가 수류응동(隨類應同)하여 각양으로 교화 사업에 힘썼다.

22) 줄고(「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호, 불교학연구회, 2005, 147~170쪽)에서는 효선편에 나타난 효의 문제를 여성에게 강압하

이야기는 신호거사의 진정한 효심과 그로 인한 깨달음, 관음화신의 도움을 받아 도량을 세우고 진리의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결말을 보여 준다. 설화에서 학의 깃은 상징적이다. 학의 깃이 오류성중의 가사 한 폭이었으므로 이는 곧 불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학의 깃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었으며, 결국은 도가 실현될 수 있는 청정한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관음의 현시는 어느 곳이나 있다. 이 설화에서 관음의 화신은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신호의 효심을 시험한 것은 물론, 신호를 독실한 수도자로 만드는 길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오류성중 신앙이 자리 잡고, 월경사에 구층석탑이 세워지게 된 것은 신호거사의 관음신앙에 의한 결과이다. 관음은 초자연적인 구세주이다. 큰 자비의 실천자요, 괴로운 세계의 구난자요, 극락세계의 안내자요, 다른 종파의 너그러운 포용자이다. 관음은 늙은 부인의 모습²³⁾으로 나타나서 깨달음을 주고 불도에 정진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어 그의 수도를 보좌하였던 것이다.

감통편에 실린 경흥우성(憬興遇聖)조에는 두 가지의 작은 일화가 맞물려 있다. 근심으로 인한 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치병(治病)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깨달음[覺]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관음 치병 설화의 앞부분은 경흥²⁴⁾이 삼량사(三郎寺)에 거주하고 있을 때 병에 걸려 몇 달이 지나도 완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승 하나가 『화엄경』(華嚴經)의 「선우원병」(善友原病)의 이야기를 들어 경흥의 병을 고쳐 주었다는 것이다. 오래도록 낫지 않았던 병이 일순간에, 그것도 한바탕 웃고 낫더니 완쾌되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이다. 대부분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바로잡아

는 불교적 효의 이상화로 설명하였다.

23) 늙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성이 지혜를 갖추고 현명한 답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삼국유사』의 설화에서 산견된다. 자세한 내용은 『삼국유사와 여성』을 참고할 만하다.

24) 謙田武雄(『新羅佛教史序說』,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88, 423쪽)은 경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憬興은 唯識을 추구한 學僧이나 그 이념을 淨土化하였다. 그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은 일본 親鸞에 의해 인용되어 淨土敎理 확립에 기초가 되었다.

도 병마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를 구하는 자가 세속에 얽매이고 미혹되면 병이 깊어진다. 따라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심을 털고 세상에 초연해져 큰 소리로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흥은 초연한 삶의 태도를 자각하고 있지 못했다. 비구니로 화현한 관음의 깨우침으로 인해 비로소 의식의 혼돈함을 한바탕 큰 웃음으로 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경흥의 문제 상황은 그가 지나치게 근엄하고 허례허식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흥의 태도를 수정해 주고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이가 관음의 화신으로 나타난 비구니이다. 경흥의 병이 근심 걱정으로 인해 웃음을 잃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그가 서민적 생활의 건강함을 등한시하고 귀족적인 근엄함에만 물들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다. 국사가 되어 지위 높은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근심이 쌓여 웃음을 잃게 되었고 고답적인 자세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경흥의 병이 까다로운 격식과 위엄을 부리고자 하는 귀족적 불교에 집착한 것이었다면, 관음의 화현 비구니는 자기를 낮추고 중생을 제도하는 민중 불교 편에서 자비를 베푸는 승려가 되도록 경흥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 자신의 허물을 깨닫도록 유도하여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관음인데, 승려의 허물을 깨닫게 하여 정각으로 이끌어 주는 이가 비구니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승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런 모습을 만들어 춤을 추어 병을 털어 버리게 했다. 특별한 의료 행위를 한 것도 염불을 외운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의 병이 근심으로 인해 깊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따름이다. 경흥은 해학적인 춤을 보면서 크게 웃고 나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관음보살은 질병 치유 능력이 있는데 병을 낫게 하는 방법으로 “웃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즉, 불경을 독송한다든가 주술적인 기도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병을 고쳤다는 일반적인 관음신앙 영험담의 유형과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웃음”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깊어 주목된다. 관음은 인간의 질병이라는 것이 대부분 마음(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밝힘으로써 고단한 삶을 사는 일반 신도들에게 정신적 각성과 깨달음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육체의 병, 정신의 고통은 외부의 힘에 의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본인의 의지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병의 근원이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떨쳐 버리려 할 때 비로소 극복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처럼 관음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스스로 각성하여 새로운 지혜의 세계를 대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관음은 경흥의 병을 자신이 직접 치유하기보다는 자발적인 치유를 인도한다. 경흥의 마음이 세속적인 근심과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고 욕망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유도한다. 선우병설(善友病說)을 취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관음은 기아행(起我行)에 있어 나와 더불어 함께할 착한 사람이다.²⁵⁾ 관음은 경흥에게 수순(隨順)의 선자(善者)인 것이다. 관음보살의 예지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기술을 가졌으며 속박에서부터 자유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줄 따름이다.²⁶⁾

2.2. 유희와 광명관음

관음은 때때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현현하기도 한다. 관음의 화현인 여성은 불도에 정진하는 수행자 가까이에서 그들을 유희한다.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시험하여 궁극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불, 왕생을 이루도록 도와준다.

불교에서는 극락왕생 혹은 성불을 방해하는 모든 욕망은 마음의 미혹이라고 해서 인간의 번뇌로 파악하였다. 특히 육체의 욕망은 마음의 바른 길을 방해하는 번뇌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성에 대한 욕망은 사람을 쉽게 불도의 길에서 탈선시키는 것으로 가장 어려운 시련이며, 수행생활을 방해해서 극락왕생을 불가능하게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았다.²⁷⁾ 여성의 유희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한층 불법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여성을 앞에 두고도 있음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상태, 목전의 현상에 초연하며

25) “起我行故名善友”, 『探玄記』 6. 善友는 梵語로 賀里也 囊密恒羅.

26) 김무조, 「新羅 觀音說話의 神秘的 體驗 2」, 『한국문화논총』 11집, 한국문화회, 1990, 39쪽.

27) 矢野尊義, 『한일고대혼인설화와 정조관』, 보고서, 2002, 182쪽.

세속적 애욕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수도자는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즉 여성의 출현은 성불의 마지막 시련이었다. 넘어야 할 최종적인 마음의 시련이었다. 마음 공부를 통해 일체 욕망으로부터 안전망을 확보할 때 드디어 왕생을 이룰 수 있었다.

불교 설법에서 애욕과 여성의 유혹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육신적 욕구와 갈등의 번뇌야말로 수행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초극하기 힘든 한계 지점이 애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행자를 독려해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데 있어 애욕의 문제를 슬기롭게 다스리는 방식은 매우 유용하였다. 그런데 이런 애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여성을 단순한 성의 유혹자로 파악하기보다는 왕생을 도와주고 결국은 성불을 이루도록 힘을 발휘하는 적극적인 조력자로 파악한 점은 의미 깊다.²⁸⁾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여성을 단순한 유혹자가 아닌 도반, 성불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남성/여성의 대립이 아니라 불법을 이루기 위해 서로 도와 상생하는 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대승적 깨달음의 교훈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을 닦고 수도를 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관음의 화신인 여인이 조력자로 등장하여 성불(成佛)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관음의 여성화는 또한 수행자들이 한결같이 현세구복의 차원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수행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고양된 의미 구현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백월산(白月山)의 동남쪽에 있는 선천촌(仙川村)의 두 사람 노힐부득(努盼夫得)과 달달박박(怛怛朴朴)이 사문(沙門)이 되어 각각 살면서 미륵불과 아미타불을 구하며 공경했다. 경룡(景龍) 3년 기유(己酉, 709) 4월 8일 성덕

28) 박상란(「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佛敎語文論集』 8집, 2003, 31~43쪽)은 유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유숙, 해산, 목욕으로 나누어 보고, 관음설화의 여성은 성욕의 대상이자 유혹하는 부정적인 여성으로 표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불교가 여성에 배타적이었다는 사실에 의존하여 관음설화에서 창출된 고유의 여성 이미지를 견인하지 못한 견해이다. 관음설화의 관음은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생산과 인식의 탄생을 도와주는 여성적 이미지의 표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왕 즉위 8년이 되는 날 아름다운 남자가 찾아와 박박에게 자고 가기를 청하자 박박은 거절하였다. 그러나 부득은 그 청을 들어주었는데 남자가 해산을 하고 목욕하기를 청하니 부득이 가엽게 여겨 목욕을 시켜 주었다. 얼마 후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나고 물이 금액으로 변했다. 부득에게도 목욕하라고 하므로 했더니 정신이 상쾌해지고 살결이 금빛으로 변했다. 또 옆에 연화대가 생겼는데 남자가 부득에게 앉기를 권하며 말하기를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제를 이루게 해 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득은 연화대에 앉아 미륵존상이 되었다. 한편 박박이 그날 밤 친구가 반드시 과거하였을 것이니 비웃어 주리라 생각하고 가 본즉 부득은 미륵존상이 되어 있었다. 박박이 놀라 예를 표하고 경위를 묻자 부득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아직도 통에 남아 있는 물에 목욕하게 하자 박박 역시 무량수불을 이루게 되었다. 두 성인은 앞 다투어 물려드는 사람에게 설명한 후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²⁹⁾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두 사람이 스스로 자신들을 찾아온 남자의 도움에 힘입어 현신성불(現身成佛)한다는 내용이다. 관음보살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이롭게 하는’[自利利他]의 대승적인 가르침을[大乘行] 실천하는 보살이다. 관음의 이타적인 실천행은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현신의 덕목과도 일치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여성의 모습은 관음의 이타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를 인도하여 그들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모습은 고대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자질이다. 이와 같은 자질은 관음을 통해 대리 구현되었다. 자리(自利)의 정진뿐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부득을 도와 성불하게 하는 관음은 표층적으로는 유혹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광명을 가져다주는 희생의 관음이기도 하다. 관음은 용맹정진하는 수도자에게는 본인이 청하지 않더라도 응현하여 성도(成道)를 돕는데 이 또한 상대의 의중을 예민하게 포착, 미리 반응하는 여성의 기민함과 연계된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 헌신하되 결과론적인 성취는 수행의 당사자인 남성에게 돌리는 은둔의 조력자. 이것이 관음이며 관음의 여성화를 가능하게 한 전략이다.

관음의 화신으로 등장한 여인은 산기가 있는 잉태의 상태이다. 이때 여인은 성적인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해산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29) 『三國遺事』 卷 三 塔像 四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恒朴朴.

부정함을 극복하고 탄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이다. 출산의 부정함은 탄생으로 극복되고 불결한 욕신은 목욕을 통해 정화된다. 산기(産氣) 있는 여성의 유희와 목욕의 에로티시즘은 성적인 환상을 자극하는 상징 코드로만 해석되어서는 설화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해산이 욕신의 탄생이라면 목욕은 정신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자 혹은 남성과 대비되는 지점에 있는 여인으로 파악하는 한, 진정한 성불을 이룰 수 없다. 남성/여성의 대립을 넘어서 인간으로 볼 때, 고통스러워 도움을 청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상대를 파악할 때 비로소 일차적인 시련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노힐부득은 여성의 생산과 새로운 생명의 경이로운 탄생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존재였으므로 금빛 물에 몸을 담가서 자신 스스로 마침내 득도하여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아이의 탄생을 통해 욕욕의 한계를 극복하고 목욕이라는 정화 제의를 통해 새로운 인식적 탄생을 한 것이다.

남성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애욕에서 벗어나야 관음보살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를 수 있음을 은유화한다. 여인을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신성한 존재로 인식할 때 비로소 수행자 역시 깨달음의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인의 존재는 수행자를 시험하는 난제이며, 동시에 수행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성찰의 한 국면이기도 하다. 여인을 단순한 성애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탄생의 주역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인을 남성과 대립되는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인간 본연의 연민에서 비롯되는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여성을 살필 수 있을 때 비로소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다.

관음의 응신체인 출산의 여인은 남성을 도와 성불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적극적 보조자의 역할을 한다. 최종적으로 여성의 힘을 빌려 자신의 소망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힘은 간과될 수 없다. 관음이 여성으로 나타나는 설화에서 여성은 남성의 수도 과정을 시험하고 가르침을 주어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으로 화신한 관음은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에

30) 김현선, 앞의 논문.

의해 온전함을 구비할 수 있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즉,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 혹은 남성 중심의 종교에서 여성의 주도적 힘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깊다.

다음은 광덕과 엄장의 이야기로 향가 「원왕생가」(願往生歌)의 배경 설화이기도 하다. 서방정도를 회구하는 두 사문이 관음의 화신이었던 분황사 계집종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성불하게 된다는 수행 경쟁담이며, 성불 득도담이다. 대략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문무왕 때 사문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 있었다. 광덕이 죽고 난 후 엄장이 그 부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여 그 집에 머물며 관계하려고 하니 부인이 도를 닦는 원리를 깨우쳐 주었다. 그 부인은 분황사의 종으로 관음보살 십구응신(十九應身)의 하나였다.³¹⁾

광덕과 엄장의 서로 대비되는 두 사람의 수행 태도를 통해 왕생에 이르는 방법을 설명한다. 서로 다른 신앙의 방식을 보이지만 어느 하나만 우세하다거나 바람직하다는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부처를 믿고 수도를 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어느 하나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편협함을 오히려 내밀하게 비판하고 있다. 부처의 도리를 깨닫고 서방왕생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방식상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광덕이 먼저 서승했다는 점에서 그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순간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렸으나 이를 뉘우치고 성실하게 수행정진하여 왕생을 달성한 수행 방식을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까? 애욕 때문에 신심이 잠시 흔들린 인간적인 모습과 본인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초극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미흡한 인간에 대한 찬사라고 볼 수도 있다.

관음은 정토왕생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자로 기능한다.³²⁾ 광덕의 아

31) 『三國遺事』卷五 感通 七 廣德嚴莊.

32) 이도흠은 광덕의 처를 세속적인 것, 세속적 욕망을 구체화한 표상이자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았다(『신라향가의 문화기호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28쪽). 이러한 견해는 광덕의 처가 여자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흔히 여인이 세속적 욕망을 시험하는 대상으로 표현되는 사실과만 연결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내로 화신현현하여 그의 수도정진을 돕고 그가 정도왕성한 후에는 입장을 준엄하게 꾸짖고 독려하여 그도 역시 왕생시키는 적극적인 왕생조력자로 기능한다. 광덕의 아내는 광덕을 위해 그의 곁에서 득도수행을 도왔다. 서방극락에 이른 광덕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본인의 수도정진과 아내의 바른길 안내 덕분이었다. 도를 닦아 왕성한 남성보다 열등해 보였던 분황사 종인 아내가 사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진도된 의미 속에 관음의 화현 원리가 담겨 있다. 즉 뜻이 높을수록, 정신세계가 숭고할수록 몸을 낮추어 나타낸다는 것이다. 관음이 여성으로 현현한 원리 안에는 불보살의 가장 높은 뜻과 가장 낮은 신분을 하나로 구현하고자 하는 생생 논리가 숨어 있다.

광덕과 업장의 정진수행의 도반이 되었던 그녀는 분황사의 종이었으나 알고 보니 관음의 화신이었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신분의 높고 낮음도 결국은 인간의 분별심에서 비롯된 가상(假像)임을 깨닫는 것은 비천한 여성이 사실은 불세계의 인도자임을 인지하는 것과 같다. 헛된 가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내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 남성과 여성이 차별화된 경계를 넘어서 인간적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고 되어 있다.

광덕과 업장의 수행 태도가 우열이나 차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성과 남성의 구분 역시 불교 안에서는 경계를 허무는 대등한 것이다.

2.3. 자애와 자모관음

「자장정율」(慈藏定律)조의 기록은 선덕왕 대 국가 불교를 이끌어 간 자장(慈藏)의 신이한 탄생담이다. 자장의 부친 김무림(金茂林)이 늙도록 자식이 없어 관음상을 조성하여 기도한 결과, 후대를 이을 훌륭한 아들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선덕왕 때의 대덕 자장(慈藏)의 성은 김(金)으로 본시 진한(辰韓)의 진골(眞骨)인 소판무림(蘇判茂林)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청관요직(淸官要職)을 지냈다. 자신의 뒤를 계승할 아들이 없으므로 삼보(三寶)에 마음을 돌

러 천부관음(千部觀音)에게 아들 하나를 낳기를 바라고 “만일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놓아서 범해(法海)의 진량(津梁)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기도하였다. 홀연히 그 어머니의 품에 별 하나가 떨어져서 품 안으로 들어오니 이내 태기가 있어서 아기 하나를 낳았는데 석존(釋尊)과 같은 날이므로 이름을 선종랑(善宗郎)이라 했다.³³⁾

자장의 탄생에 얽힌 관음 영험담이다. 관음신앙에 관한 신라 최초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신라 관음의 수용 양상을 보여 주는 단초를 제공한다. 자장의 출생 연도를 기점으로 추정해 보면 580년경에는 이미 신라에 관음신앙이 도입되어 널리 신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음신앙이 신봉되던 초기에는 아들을 구하는 기자(祈子)신앙적 역할을 하였던 정황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 양상은 신라에 관음신앙이 전해져 기층민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재래 신앙이었던 기자신앙과 결합되어 신앙의 저변을 확대하였음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면, 관음신앙은 현세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험담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들을 바라는 여성들의 욕구에 응대하는 방식으로 신심을 확산하여 나갔던 것이다. 관음신앙은 현세 이익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여성들의 욕망을 충실히 반영하고 실현해 나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음신앙의 대중화는 토착 신앙을 무리 없이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방식에 여성의 욕망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관음은 아들을 얻기를 간구하는 여인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잉태하게 함으로써 그녀들의 간절한 소망을 성취시켜 주기도 한다.³⁴⁾ 아들 낳기를 갈구하는 것은 대를 이어야 하는 자손의 의무이자 가계 존속을 위한 매우 현실적인 소망이다. 특히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에게 대를 이을 사내아이를 생산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였다. 자신의 존재 기반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다. 지극히 원초적인 득남의 욕망은 여성들의 생존, 나아가서 존재 증명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녀들의 욕망을 살펴 소망이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관음의 신이한 능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이가 없는 자에게 아이를 주는 것은 관음의 현세 이익적인 구제 성격

33) 『三國遺事』卷四 義解 慈藏定律.

34) 『妙法蓮華經』卷第七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新修藏, 제9권, 57쪽).
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智慧之男.

에 부합되는 것이면서, 모성의 연대감을 강화해 주어 의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황제가 꿈에서 본 십일면관음보살을 그린 화공이 신라에 와서 중생사(衆生寺)의 관음보살상을 만들었다. 신라 말기 천성연간(天成 926~929)에 정보(正甫) 최은함(崔殷諫)이 늦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이 절의 관음보살상 앞에 와서 기도한 후 부인이 태기가 있어 마침내 아들을 얻었다. 그러나 백제의 견훤(甄萱)이 침입하자 은함은 어쩔 수 없어 아이를 관음상의 사자대 밑에 감추어 두고 떠났는데,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아이의 살결이 새로 목욕한 것과 같고 모습도 어여쁘고 아직도 젖 냄새가 남아 있었다.³⁵⁾

「탑상」(塔像)편은 탑과 불상에 얽힌 신이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생사의 십일면관음보살상에 얽힌 신이한 사건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신비한 힘을 지닌 화공이 그린 십일면관음상의 신묘한 힘이 갓난아이를 보호한 영험담이다.

중국의 황제와 화공에 얽힌 일화에서 시작되는데, 중국의 황제는 화공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배꼽 아래 점까지 그려 내자 자기가 꿈에서 본 것을 그려 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화공은 십일면관음상을 그려 바쳤고, 왕은 꿈에 본 것과 일치하므로 그를 사면했다. 화공은 연후에 불법을 신봉하는 신라에 와서 중생사의 관음보살상을 조상했는데, 영험력이 남달라 우러러보고 기도하면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중생사의 관음보살상이 만들어진 유래담인데 관음보살의 모성애적 자비가 돋보인다. 관음상을 만든 화공의 신기 넘치는 예술적 힘뿐만 아니라 관음보살의 아이를 돌보는 자애지정(慈愛之情)이 모성을 환기시킨다.

관음은 자식을 간구하는 중생에게 남아를 잉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를 보호하여 어린 생명을 지켜 주었다. 때문에 자식을 주어 현실적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것은 오히려 관음의 소극적인 실천 능력으로 보인다. 관음은 전쟁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신이를 행하였다.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되 그 실천 방식은 모성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하

35) 『三國遺事』 卷 三 塔像 第四 三所觀音衆生寺.

고 있다.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데 헌신하는 마음, 어떠한 시련에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어미의 애절한 사랑의 실천 방식과 관음의 구체력은 매우 닮아 있다. 적병이 물러가고 반달이 지나 돌아와 보니 어미 이상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듯하니 관음의 대자대비한 포용력이 모성으로 강화된 것이다. 관음의 성격이 여성화되고 모성성과 결부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신앙, 내재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 지모신, 대모신적 성격이 관음을 통해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변용되었고, 사회 안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을 불교의 권역으로 끌어안으려 했던 대승불교적 시선과도 분리될 수 없다. 관음의 자애롭고 포용적인 태도는 여성의 모성으로 쉽게 환치되었다. 때문에 관음은 어린아이를 보호하거나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여성의 모성적 본능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녀들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주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관음보살은 인간의 현실적인 소망을 충족시켜 주며 고난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신이한 힘을 발휘하는데, 여성화된 관음의 힘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³⁶⁾

다음은 앞을 볼 수 없는 어린아이가 관음의 위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개안 설화이다.

경덕왕 때 한기리에 사는 희명(希明)이라는 아이가 난 지 오 년 만에 눈이 멀었다. 그의 어미가 분황사(芬皇寺) 천수대비전(千手大悲前)에 아이를 안고 나아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다. 노래를 불렀더니 아이의 눈이 떠졌다.³⁷⁾

「탐상」(塔像)편에 실린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의 이야기는 관음의 자비로운 구체력으로 실명의 고통을 거두어 개안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관음 영험담이다. 분황사의 솔거가 그랬다고 하는 천수관음상에 얽힌 신이담이지만, 애절한 모성이 관음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독특한 비애감과 경이로움을 주는 설화이다.

36) 관음의 여신화 과정과 여성적 성격에 대한 고찰은 김현선, 조현설, 박상란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7) 『三國遺事』 卷 第三 塔像 第四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어린이가 눈을 뜨고 싶어 천수관음전에 나아가 간절한 기도의 노래를 불렀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다. 천수관음은 장애의 고통을 해소시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사람의 눈이란 세계를 보는 창이므로 시력의 상실은 세계의 존재 의미 상실이다. 세계와 단절된 나를 화해하게 만들며 세상을 바라보는 물리적 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눈을 구비하게 해 주는 것이 관음의 위력이다. 희명은 자신의 현실적 고통을 탄원하되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천수관음에게 발원하고 있다. 또한 희명의 어머니는 천수관음과 자신의 의지 지향을 동일시하여 자신이 천수관음이라면 아이의 애절한 기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감정 이입을 한다. 관음과 희명의 어머니는 아이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소망과 능력에서 상호 감정적 소통을 한다. 감정 이입은 동일화로 이어져 희명은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관음전에 나아가 발원하며, 희명의 어머니는 천수관음이 어머니와 같은 무한한 자비와 자기희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중생의 고통을 살피 헤아리는 관음보살의 대자대비의 성품은 모성을 환기시킨다. 자애로운 모성적 품성에 대한 경배는 고대 한국 관음신앙의 고유한 특색이다. 본래 관음신앙의 연원은 오래되지만 여성화되어 자애 모성으로 나타난 것은 관음의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의 측면이다.³⁸⁾ 관음은 불교 수용 초기에서부터 여성적 성격을 강화하여 나갔다. 불교 안에서 배척되었던 여성성을 회복해 나가면서 상처 받은 약한 자들의 어머니이자 위안자이며 인도자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관음은 나약한 여성들에게 삶의 추진력과 정신적 고양과 치유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다.³⁹⁾

38) 관음보살의 감각적 외형과 내재적 심상이 상징하는 여성화된 이미지는 마치 기독교적 구원을 베푸는 ‘성모’처럼 모성적 공간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9) 관음신앙이 일어난 것은 대승불교 초기이고, 민간신앙적인 성격이 불교에 흡수될 때 관음도 그 하나로 현재 이익적 성격을 지니고 들어왔다. 관음은 전란 속에서 민중들이 겪게 되는 아픔, 불안, 공포, 그리고 갖가지 재난으로부터 중생을 구원해 주는 구원의 화신이었다. 온갖 현실적 고뇌에서 탁월한 구제력으로 응답하는 관음에 대한 신앙은 민중 구원신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이귀선, 『신라의 관음신앙 연구』, 경산대학교 철학박사학위논문, 2001, 1~8쪽).

3. 관음의 이상화된 여성화와 의미

불교의 관음보살은 인도에서 발생할 당시 남성신의 모습이었다.⁴⁰⁾ 아잔타석굴의 관음은 남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승설화에 서도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¹⁾ 이러한 남성적 관음은 중국을 거쳐 고대 삼국에 전해지면서 여성화되었다. 중국에 전래되면서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이 강화되었으며, 고대 삼국의 수용 과정에서는 관음의 현세구복적 의미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자애로운 여성상이 부가되면서 강화되었다. 관음신앙이 중국에 수용되면서 남성신이었던 관음은 여성화되는 일차적 성전환을 거치게 되었는데 남성이 여성화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적 매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초기 관음상의 모습 역시 여성적인 매력, 예컨대 풍만한 가슴과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굴곡이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성적 매력이 강화된 관음은 설화 안에서 성적 유혹자, 득도수행을 방해하는 욕욕의 화신의 역할을 담당하기 쉬웠다. 그 후 여성화된 관음은 고대 삼국에 전래되면서 여성으로서 이상화되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성화가 진행되었다. 여성의 유혹자적인 성적 매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대신 모성적이며 지도자적인 카리스마의 여성으로 재탄생하였다는 데 한국 관음신앙의 여신화는 차별화된 의미를

40) 불교의 여성관은 불교가 발생한 인도의 사회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도는 일부다처제였고 석가 자신도 출가하기 전에 3명의 아내[妻]가 있었으므로 고대 한국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경전에 여성은 분명히 남성보다 하위의 존재임이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불보살은 남성이며, 여성은 불교 안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결코 왕생을 얻을 수 없었다. 인도,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지에서 보이는 여성 기피 교설에 관해서는 勝浦舎子, 『女の信心』(東京, 平凡社, 1995, 157~159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여성은 성불할 수 없으며(女性不成佛論), 여성은 뛰어난 법력과 수행력을 가진 존재로 절대 될 수 없다는 “女人五障說”과 같은 초기 인도 불교의 입장이 불교 전파와 함께 각각의 나라에 수용되었다고 보았다. 초기 인도 불교는 이와 같이 반여성적이었지만, 개별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

41)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찾는다.

『삼국유사』에 실린 관음설화의 경우, 관음은 여성의 모습으로 응신한다. 관음보살이 여신화되어 나타난 배경은 당대 사회의 전통과 새로운 종교 수용을 위한 국가적 요구와 고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다.⁴²⁾ 고대 재래 신앙의 대지신적이고 극모신적인 여성에의 숭배의 전통으로 인해 관음의 여성화는 재래 신앙과 함께 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자애로운 모성과 헌신적 희생, 그리고 지혜로운 인도자의 모습은 재래 신앙의 여성 숭배와 큰 간극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게다가 국가적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해 가려는 의지의 표상으로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관음상에 투영하였다. 불교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등 없이 평등하며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는 원리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런 평등 정신이야말로 남성 중심의 불교가 여성을 수용하면서 차별화된 성 관념을 극복해 내는 관음신앙의 요체이기도 하다.

관음설화에 나타나는 여신화된 관음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성스러운 관음, 유혹하지만 결국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관음, 자애로운 모성의 관음이다. 성스러운 관음은 세속적 욕망의 허탄함을 깨닫게 한다. 또한 관음보살의 종교적 기능에 가장 충실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굶어 살펴 중생의 바라는 바를 들어준다. 유혹의 관음은 아름다운 젊은 여인으로 변화하여 남성의 애욕을 시험하는 동시에 여성의 매력을 노출하는 관음의 모습이다. 그러나 관음은 여성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경계 짓는 것을 초월하게 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자각을 촉구하고 정신적 각성과 승화된 정신의 고양을 가능하게 하여 원하는 바의 성불이나 극락왕생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자애로운 관음은 모성애적인 자비가 돋보이는 형상이다. 이는 어머니의 희생과 자애를 상징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관음신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다.

42) 박상란(앞의 논문)은 불교 전래를 전후한 고대 여성의 사회, 문화적 지위, 특히 종교상의 지위는 낮지 않다고 하였다. 불교 내외의 여성 실상이 관음설화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여성의 지위가 조선시대보다 낮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 우월하게 그려지는 관음설화를 단지 사회적 실상의 반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성신으로서의 관음의 현현 양상은 당대 불교가 가지고 있었던 여성 기피 내지는 여성 폄하를 상쇄시켜 주는 기제였다. 어떠한 난제에 직면해서도 관음보살만 칭념하면 구제될 수 있다는 믿음은 관음보살의 여성으로 화현하는 양상으로 인해 모성적 믿음을 한층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관음신앙은 여성적 섬세함과 희생을 표면화하고, 감추어진 내성을 견인해 내는 강한 지도자적 기질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대 한국의 관음신앙은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에, 자비, 그리고 희생과 같은 긍정적인 덕목들을 관음 안에 투사함으로써 사회 권역 밖에 머물러 있던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불교 안으로 흡수해 나갔던 것이다. 불교 안에서 관음으로 상징화되는 여성들은 사려와 배려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힘의 체현자이다.

그러나 이상화된 여성상의 이면에는 여성에게 은밀하게 요구하는 강압적인 시선도 함께 존재했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지혜와 분별력을 미덕으로 칭송하였으나 그것의 표현 방식은 매우 내밀하여야 했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얻어 정신적 고양을 얻는 대상은 남성이었고, 여성은 보조자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은 출산, 잉태와 같은 생산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에게는 유혹하거나 혹은 불결한 느낌을 주는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때문에 여성은 극복해서 이겨 내야 하는 도전 과제이기도 했다. 여성이라는 성의 경계를 초극할 때 비로소 서방세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모성애적인 자애로움 역시 여성에게 요구되는 희생과 자기헌신의 미화된 자질이기도 하다.

관음을 여성화하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러 이상적인 자질들을 부여하여 여성화를 가속화시켰다. 내부적으로는 여성에게 더욱 엄정한 자기희생과 남성을 위한 조력자의 자질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가진 모성에, 지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미화하면서 이상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불교 밖에 있던 여성을 관음신앙 안으로 포용하면서 긍정적인 시선을 투사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전환이다.

참고 문헌

자 료

『삼국유사』

논 거

- 길태숙·윤혜신·최선경, 『삼국유사와 여성』, 이회, 2003, 240~268쪽.
- 김무조, 「新羅 觀音說話의 神秘的 體驗 2」, 『한국문학논총』 11집, 한국문학회, 1990, 39쪽.
- 김현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구비문학연구』 9, 한국 구비문학학회, 1999.
- 박상란, 「관음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佛敎語文論集』 8집, 한국불교어문학회, 2003.
- 오대혁,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白鹿語文』 16집, 백록어문학회, 2002, 91쪽.
- 윤중배, 「『삼국유사』 고승설화에 나타난 민중의식」, 『동양고전연구』 4집, 동양고전문학회, 1995.
- 인권환, 「新羅 觀音說話의 樣相과 意味」, 『韓國佛敎文學研究』,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 조동일,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54쪽.
- 조현설, 「동아시아 관음보살의 여신적 성격에 관한 시론」, 『東아시아 古代學』 7, 동아시아고대학회, 2003.
- 최정선, 『三國遺事 觀音說話와 그 詩的 變容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10호, 불교학연구회, 2005.
- 黃溟江, 『신라불교설화 연구』, 일지사, 1975, 221쪽.
- 허홍식, 『韓國中世佛敎史研究』, 일조각, 1994, 106~109쪽.
- Jose Ignacio Cibezon, “The Gender Symbolism of Kuan-yin Bodhisattva”, *Buddhism, sexuality and gender*, New York, Albany, 1992.
- 謙田武雄, 『新羅佛敎史序說』,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1988, 400~404쪽.
- 平川彰, 『佛敎通史』, 春秋社, 1978, 62~63쪽.
- 矢野尊義, 『한일고대혼인설화와 정조관』, 보고사, 2002, 182쪽.

A Study on the Strategy and Aspect of Feminization of KANUM

■
Choi, Jung-sun

Kanum was originally male figure when it was initiated in India for the first time. It was expressed and described as a male figure not only in the cave painting but also in the stories. However, there had been astonishing changes taken placed while *Kanum* had been transmitted to China and ancient Korea, that is to say, sexual transformation. At the first stage in China, *Kanum* was transformed into a female figure who especially reveals one's sexuality and then it was brought in ancient Korea. In Korea, character of *Kanum* had been idealized in the way that stressed on the maternity and feminity as a leader.

The story of *Kanum* in *Samgukyusa*, mostly *Kanum* replied to human-being's sufferings as a female figure such as beautiful, pregnant, and married lower class women. For the back ground of this feminization, there must be certain social needs and social customs and cultures, for instance feminine goddess in ancient society. A benevolent, devoted mother images was added to a women who was supposed to be patient. In addition to that, *Kanum* was played active role in embody th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an in the realm of Buddhism.

The aspects of *Kanum* in *Samgukyusa* might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which is sacred, seducing and benevolent woman appearance. Sacred one made man realize vanity of the mundane world, and seducing one have man achieve his goal to get paradise. Finally benevolent one

usually appeared as a mother figure and showed up maternity. All female figures of *Kanum* finally lead a man to get to their own goal by making him realize how vainful the mundane world and their desire is. These feminized *Kanum* images had contributed to the spread and consolidation of Buddhism.

However, there existed a forceful power that was enforced to a women as a secret way. Even though wisdom and clear thought was admired as a women virtue, expression of this had to be very confidential and quiet way that was regared as a woman quality. Ultimately, man was easy to gain his goal compare to woman and woman played an role as a helper or guide. Also women figure was treated as a dirty and unhallowed one so man was required to be overcome female's seduction and unsacred images. At the last, devoted mother images also were glorified and idealized women qualities which should be practiced in daily lifes.

Nonetheless, it was a meaningful changes that women was taken as a positive images in the Buddhism in ancient Korea.

▶ 주제어: 관음의 여신화, 유혹, 광명, 자애, 성관음(聖觀音), 관음의 포용력, 여성 자질의 이상화.